

## 원효 저 『판비량론』의 대승불설 논증

- 勝軍의 대승불설 논증에 대한 玄奘의 비판과 元曉의 改作 -

김 성철(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 I. 서론

인도 유학승 玄奘의 문하에 들어가기 위해 入唐 유학 길에 올랐다가 大悟하여 唯心偈<sup>1)</sup>를 읊으며 발길을 돌렸던 元曉(617~686C.E.)는 그 10여 년 후 行明寺에서, 자신이 흠모했던<sup>2)</sup> 삼장법사 玄奘과 그 문하생들의 학문에 대한 정교한 비판을 담은 『判比量論』을 脫稿하였다.<sup>3)</sup> 『판비량론』에서 원효는, 현장이 신봉했던 護法의 四分說이 범하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였고,<sup>4)</sup>

- 1) ‘마음이 일어나니 만사가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토감과 고분이 다르지 않구나. 또,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고 만법이 모두 인식의 소산이라 마음 바깥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하겠는가?’ 나는 당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心生故種種法生 心滅故龕墳不二 又三界唯心萬法唯識 心外無法胡用別求 我不入唐): 『宋高僧傳』, 大正藏50, p.729a.
- 2) 慕奘三藏慈恩之門 厥緣既差息心遊往: 『黃龍寺 元曉傳』, 『宋高僧傳』, 大正藏50, p.730a.
- 3) 『判比量論』 말미의 회향계에 달고일자가 기록되어 있다. 證成道理甚難思 自非笑却微易解 今依聖典舉一隅 願通佛道流三世 判比量論 一卷 釋元曉述 咸亨二年 歲在辛未 七月十六日 住行名寺 着筆租訖(증성의 이치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지만, 내 웃으며 밀쳐버리지 않고 조금이나마 쉽게 풀어, 이제 성스러운 불전에 의지해 그 일부를 제시하니, 불도가 소통되어 언제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判比量論 1권, 釋元曉 지음. 함형 2년, 즉 신미년, 7월 16일. 행명사에 머물며 붓을 잡아 부담스럽던 일을 끝마치다).

인명학의 難題였던 第5句因의 문제와 相違決定因의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였으며<sup>5)</sup>, 대승유식에서 말하는 제8 아뢰야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증식을 고안해 보이기도 하였다.<sup>6)</sup> 그러나 『판비량론』의 테마들 중 현장의 학문에 대한 원효의 공격이 가장 극명히 드러나 있는 것은 ‘유식비량’ 및 ‘승군비량’과 관계된 논의들이다. 이 두 가지 논의 모두 현장이 직접 고안했던 논증식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현장이 역출했던 논서들을 통해 인명학을 공부했던 원효가, 인명학을 잣대로 삼아 도리어 현장의 잘못을 지적하며 가르치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흥미를 끈다.<sup>8)</sup> 필자는 이 중 유식비량과 관계된 단편들을 수집, 번역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후 원래의 모습으로 재배열하여 「원효 저 『판비량론』의 산일부 연구 I」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sup>9)</sup> 본고에서는, 나머지 ‘승군비량과 관계된 논의’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승군비량과 관계된 『판비량론』의 逸文에 대해 연구한 학자는 일본의 富貴原章信뿐이었다.<sup>10)</sup> 그의 연구는, 散逸文을 수집한 후 그에 대해 일차적으로 번역하고 해석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긴 하지만, 각 논증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

4) 『판비량론』 제8절.

5) 『판비량론』 제11, 12절.

6) 『판비량론』 제9절. 이에 대해서는 줄고, 「원효 저 판비량론 제9절의 재검토」(『한국불교학』 제32집, 2002년 6월) 참조.

7)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원효의 판비량론」(불교원전연구 제2호,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2001)이나, 2003년 4월 중순 출간될 예정인 「줄거, 『원효의 판비량론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8) 이 두 가지 논의 모두 일본 학승 善珠(724~797C.E.)의 『因明論疏明燈抄』와 藏俊(1104~1180C.E.)의 『因明大疏抄』(大正藏68) 등에 인용된 모습으로 현존한다.

9) 이에 대해서는 줄고, 「원효 저 판비량론의 산일부 연구 I - 유식비량과 관계된 산일부의 수집과 해석과 복원」(『한국불교학』 제33집, 2003년 2월)을 참조하기 바람.

10) 富貴原章信, 「判比量論の研究」(神田喜一郎 編, 『判比量論』, 東京, 便利堂, 1967), pp.72~67.

필자는 窺基의 『因明入正理論疏』와 元曉의 『判比量論』을 자료로 삼아, 승군의 대승불설 논증이 고안되기까지의 과정, 그에 대한 현장의 비판, 현장이 새롭게 고안한 논증식의 의미, 현장의 논증식에 대한 원효의 비판, 원효가 새롭게 고안한 논증식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대승불설 논증과 관계된 다른 단편 한 가지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분석하여 본고 말미에 첨부하였다.

## II. 대승불설을 증명하는 『攝大乘論釋』의 논증식과 勝軍比量

### 1. 『攝大乘論釋』의 논증식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

無着(Asaṅga: 395~470C.E. 경)의 『攝大乘論』에 대한 無性(Asvabhāva)의 주석서인 『攝大乘論釋』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宗1] 대승의 가르침은 진정한 佛語이다. [因1]보특가라(puḍgala)가 無我인 점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宗1] 이뢰야식은 能證의 가르침이다. [因2] 稱하는 所證의 이치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喻1] 마치 ‘칠라적으로 신속히 소멸한다’는 등을 설하는 말씀과 같이. [喻2] 마치 부처님의 다른 말씀과 같이.<sup>11)</sup>

窺基는 이런 『攝大乘論釋』의 문장 중 宗1, 因1, 喻2<sup>12)</sup>를 조합하여 논증식으로 재구성한 후 이를 『攝大乘論』의 說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11) 大乘教眞是佛語 一切不違補特伽羅無我性故 阿賴耶識能證之教 稱所證義佛所說故 如說剎那速滅等言 如佛餘言(無性, 『攝大乘論釋』, 大正藏31, p.396c).

12) 『攝大乘論釋』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은 아함경을 의미하기에 窺基는 喩를 ‘중일아함경’ 등과 같이’로 풀어쓴다.

『섭대승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중] 대승경전들은 모두 佛說이다.

[인] 보특가라(人我)가 無我인 이치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중일아함경』 등과 같이<sup>13)</sup>

『攝大乘論釋』에서의 ‘대승의 가르침’(大乘敎)이라는 표현이 ‘대승경전’(大乘經)으로 바뀌어 있고, 佛語라는 표현이 佛說로 바뀌어 있는데, 이런 다른 표현들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승의 가르침’은 ‘대승경전’과 혼용될 수 있고, ‘불어’는 ‘불설’과 혼용될 수 있다.

그런데 『攝大乘論釋』에서 채취된 이 논증식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似因 중 하나인 隨一不成<sup>14)</sup>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소승측에서는 대승의 가르침이 무아의 이치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소승측에서는 ‘대승에서는 상주하는 자아가 있다고 설한다’고 보기 때문이다.<sup>15)</sup> 또 설혹 대승의 가르침이 무아의 이치와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기한 논증식은 不定因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六足論<sup>16)</sup>은 후대에 작성된 아비달마 논

13) 攝大乘論說 諸大乘經 皆是佛說 一切不違 補特伽羅 無我理故 如增一等(窺基, 『因明入正理論疏』, 卍續藏86, p.756a / 大正藏44, p.121a).

14) 『因明入正理論』에서는 似因 중 하나인 ‘隨一不成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은 성현현론자(聲顯現論者)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에 대해 불성립인 것(隨一不成)’이다’(所作性故 對聲顯論 隨一不成 / kṛtakāvād iti śabdābhivyaktivādinam praty anyatarāsiddhah//). 여기서 말하는 논증식 전체는 다음과 같다. [중] 소리는 무상하다. [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聲常住論을 주장하는 성현현론자의 입장에서는 소리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여기에 사용된 因은 立論者만 인정할 뿐, 대론하는 敵對者는 인정하지 않는다. 입론자와 적대자가 공히 인정하는(立敵共許) 因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대해 불성립인 것’(隨一不成)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15) … 他宗不許 大乘不違 無我理故 說有常我 違眞理故 …: 窺基, 『因明入正理論疏』, 卍續藏86, p.756a / 大正藏44, p.121b.

16) 有部の 아비달마 논서 중 六足論이라고 불리는, 『品類足論』, 『識身足論』, 『法蘊足論』, 『施設論』, 『界身足論』, 『集異門足論』을 말한다.

서이기에 불설이 아니지만, 그 가르침은 보특가라(pudgala: 人我, 個我)가 무아인 이치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기한 논증식은 同品有, 異品有인 共不定因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검증된다.

동품정유성의 검토: 佛說(同品) 중에 보특가라가 무아인 이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있다(有): 『증일아함경』

이품변무성의 검토: 佛說이 아닌 것(異品) 중에 보특가라가 무아인 이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있다(有): 육족론

그래서 玄奘의 스승이었던 勝軍은, 이러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대승이 불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증식을 새롭게 고안하였던 것이다.

## 2. 勝軍이 새롭게 고안한 논증식

玄奘은 장안을 떠난 후 약 4년째 되는 해에 마가다국의 나란다사에 머물며 약 5년 간 梵語와 因明學을 연구한다. 그리곤 마가다를 떠나 동인도 참바를 거쳐 카마루파국으로 갔다가 다시 남하하여 칼링가, 닥스나코살라, 안드라, 드라비다 등의 남인도를 거쳐 서인도로 나와 약 3년 후 다시 마가다국에 돌아와 반야발타라로부터 因明을 배운 후 勝軍(Jayasena)<sup>17)</sup>의 문하에 들어가 『唯識決擇論』과 『無畏論』, 『不住涅槃論』, 『十二因緣論』, 『莊嚴經論』 등을 배우고 唯識과 因明 등에 관한 의문점을 물어 그것을 통달하게 된다.<sup>18)</sup> 그런데 玄奘의 스승이었던 勝軍은, 대승불설을 증명하는 『攝大乘論釋』의 논증식을 개량하여 대승이 佛說임을 입증하는 다음과 같은 논증식을

17) 勝軍은 蘇刺佗國 사람으로 安慧로부터 因明과 대소승의 논서를 배웠고, 戒賢으로부터 『유가론』과 함께 『베다』와 천문, 지리, 의술 등을 모두 배운 바 있다(『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 大正藏50, p.244a).

18) 武昌尙邦, 「中國의 因明思想」, 三枝充惠 편, 심봉섭 역, 『인식론·논리학』, 불교시대사, p.310.

고안한다.

諸大乘經 皆佛說 兩俱極成非諸佛語所不攝故 如增一等阿笈摩

[중] 대승경전들은 모두 佛說이다.

[인]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들이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sup>19)</sup>

[유] 增一 등의 아함경과 같이<sup>20)</sup>

이 논증식에서 因으로 사용된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말은 ‘입론자와 적대자 모두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窺基의 설명에 의하면, 勝軍이 이렇게 독특한 因을 고안했던 것은 外道나 六足論 등의 가르침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sup>21)</sup> 『攝大乘論釋』에 제시되었던 논증식의 경우, 육족론의 실례로 인해 異品有가 되어 共不定因의 오류를 범하고 말았는데, 위와 같이 논증식을 작성할 경우, 이품인 육족론이 인을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이 품무가 되어 부정인의 오류에 벗어날 수 있다고 勝軍은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勝軍의 논증은 二重否定을 통한 ‘직접추리’와 유사하다. 勝軍比量에 사용된 因의 이품변무성은 다음과 같이 검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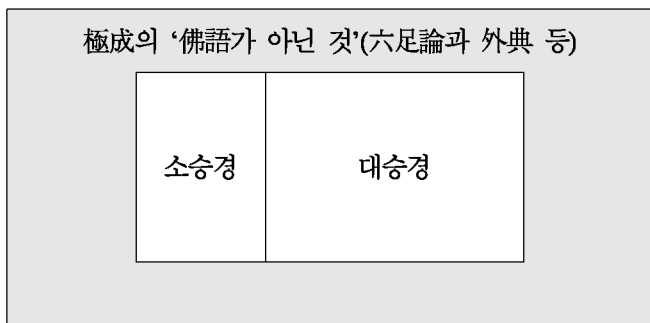
이품변무성의 검토: 佛說이 아닌 것 중에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없다.

19) 원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들>이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이고, 둘째는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들이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이다. 첫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소승 삼장’을 의미하게 되어 논증식의 喩가 무의미해 진다. 따라서 두 번째 해석이 옳다.

20) 窺基, 『因明入正理論疏』, 卍續藏86, p.756a / 大正藏44, p.121b. 『判比量論』에서 元曉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諸大乘經 是佛所說 極成非佛語之所不攝故 如阿舍經.

21) 兩俱極成非佛語所不攝者 立敵共許非佛語所不攝 卽非外道及六足等教之所攝故: 窺基, 위의 책, 卍續藏86, p.756a / 大正藏44, p.121b.

대승과 소승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육족론’ 등을 들 수 있다. 대승측에서는 대승경전과, 아함경 등을 불어라고 간주하고, 소승측에서는 아함경 등을 불어라고 간주한다. 대승(Mahāyāna)측에서 불어라고 간주하는 것을 M, 소승(Hīnayāna)측에서 불어라고 간주하는 것을 H라고 符號化할 경우, 勝軍比量에서 말하는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불어가 아닌 것>’이라는 표현은 ‘ $\sim(M \cap H)$ ’가 아니라 ‘ $\sim(M \cup H)$ ’라는 의미이다. 즉, “<대승이 인정하는 불어>이면서 <소승이 인정하는 불어>”가 아닌 것 이 아니라 “<대승이 인정하는 불어>이거나 <소승이 인정하는 불어>”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승이 인정하는 불어가 아닌 것>이면서 <소승이 인정하는 불어가 아닌 것>’( $\sim M \cap \sim H$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이 圖示된다.



- 玄奘에게 비친 勝軍의 경전관 -

대승에서는 六足論과 外典 등을 ‘불어가 아닌 것’으로 보고, 대승경과 소승경(= 아함경 등)을 불어로 간주한다. 한편 소승에서는 소승경만 불어로 간주하고, 육족론과 외전, 그리고 대승경을 불어가 아닌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승과 소승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불어가 아닌 것>’은 위의 圖解 중 바깥 부분에 해당하며,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불어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는 ‘소승경’은 물론이고 ‘대승경’도 포함된다. 勝軍比量의 因에 부가된

‘양측 모두 인정하는’이라는 단서는, 이품 중 因을 충족시키는 사례에서 육족론을 제외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勝軍의 比量이 발표되자 오래 동안 이를 詰難하는 사람이 없었다.<sup>22)</sup>

### III. 勝軍比量에 대한 玄奘의 비판

인도에서 이런 승군의 논증식에 최초로 반기를 든 사람은 현장이었다. 勝軍에게 인명학을 배우고 있던 玄奘은 『발지경』을 예로 들어 勝軍의 논증식에 부정인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소승인 설일체유부에서는 소승경은 물론이고 『발지경』도 불설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勝軍이 소속된 대승에서는 불설이라고 인정하지 않기에,<sup>23)</sup> 대승측의 입장에서 볼 때 勝軍 比量은 부정인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玄奘의 경전관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極成의 불어 아닌 것(육족론과 외전 등)		
발지 경	소승경	대승경

- 玄奘의 경전관 -

22) 時久流行 無敢徵詰: 窺基, 위의 책.

23) ‘설일체유부의 논사들은 『發智論』을 佛說이라고 인정하며 다른 소승과 대승에서도 역시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어찌 그대의 대승에서 불설이라고 인정하겠는가?’(發智論薩婆多師自許佛說 亦餘小乘及大乘者 兩俱極成非佛語所不攝 豈汝大乘許佛說耶: 窺基, 위의 책, 卍續藏86, p.756a / 大正藏44, p.121b).



그러면 勝軍比量을 다시 기술한 후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중] 대승경전들은 모두 佛說이다.

[인]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들이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增一 등의 아함경과 같이

玄奘의 경전관에 의거해 勝軍比量을 해석할 경우, 勝軍比量은 비단 대승 경전뿐만 아니라, 『발지경』도 불설임을 논증하게 된다. 즉, 대승측에서 볼 때, 불설이 아닌 것도 불설이라고 논증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승과 대승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불어들이 아닌 것>’은 위의 도식에서 바깥의 채색한 부분에 해당하고, ‘소승과 대승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불어들이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는 아함경 등의 소승경과 대승경은 물론이고 『발지경』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승군의 논증식은 부정인의 오류에 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소승측에서 불어로 인정하는 『발지경』’의 존재로 인해 勝軍比量에서 발생하는 부정인의 오류는 다음과 같이 검증된다.

동품정유성의 검토: 불설 중에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불어들이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있다: 增一 등의 아함경

이품변무성의 검토: 불설이 아닌 것 중에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불어들이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있다: 『發智經』

이는 동품유, 이품유의 共不定因이다. 『判比量論』에는 승군비량에 대해 玄奘이 비판했던 과정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勝軍論事는 比量을 세워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 대승경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인] 양측 모두 인정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아함경과 같이. 이에 대해 소승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정인의 오류

를 지적한다. 『發智經』과 같은 것은 양측 공히 인정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 대승측]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迦延經』[= 『發智經』]을 설일체유부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인정한다. 경량부와 대승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부정인의 과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sup>24)</sup>

여기서 元曉가 말하는 『迦延經』의 ‘가연’은 ‘身’을 의미하는 범어 ‘kāya’의 음역어일 수도 있고, 『發智論』의 저자인 迦多衍尼子라는 이름을 축약한 것일 수도 있다.<sup>25)</sup> 그러나 迦多衍尼子를 축약하면 ‘迦延’이 아니라 ‘迦衍’이 되어야 하기에 『因明論疏明燈抄』의 저자 善珠가 말하듯이 이를 kāya의 음역어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26)</sup> 또, 『發智經』은 『發智論』으로 볼 수 있는데 『品類足論』, 『識身足論』 등의 여섯 가지 논서는 발(足)과 같이 各論의 기능을 하기에 六足論이라고 통칭하는 데 반해, 『發智論』은 몸(身)과 같이 總論의 역할을 하기에 『發智身論』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身經’으로 의역될 수 있는 『迦延經』은 『發智經』의 異名임이 분명하다.<sup>27)</sup> 어쨌든, 勝軍比量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에 대한 元曉의 지적은 玄奘의 지적과 차이가 없다. 다만, 『發智經』, 즉 『迦延經』을 비단 대승뿐만 아니라 소승 經量部에서도 佛語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24) 判比量云 勝軍論師 立比量言 諸大乘經 是佛所說 極成非佛語之所不攝故 如阿含經 此中小乘作不定過 如發智經 極成非佛語之所不攝故 而汝不許佛說故 謂迦延經 薩婆多宗許是佛說 經部大乘謂非佛語 由此不離不定過失(藏俊, 『因明大疏抄』, pp.449c~450a).

25) 2003년 3월 8일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렸던 불교학연구회 세미나에서 필자가 승군 비량과 관계된 논문을 발표할 때, ‘迦延은 kāya의 음역어가 아니라 『發智論』의 저자인 迦多衍尼子(Kātyāyanīputra)의 축약어’일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사회를 보았던 이종철 교수에 의해 제시되었다.

26) 善珠, 『因明論疏明燈抄』, p.345b.

27) 『大品般若波羅蜜多經』을 의역하여 그 用例가 없는 『大慧度經』이라고 부르는 데서 볼 수 있듯이, 元曉는 經名을 임의로 바꾸어 부르는 경우가 많다.

#### IV. 玄奘이 개량한 논증식과 그에 대한 元曉의 비판

##### 1. 玄奘이 개량한 ‘대승불설을 증명하는 논증식’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

이렇게 『發智經』의 존재로 인해 勝軍比量이 부정인의 오류에 빠짐을 지적한 玄奘은 勝軍比量の 因에 단서를 부가하여 부정인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논증식을 고안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元曉와 窺基가 소개하고 있는 玄奘의 논증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元曉는 玄奘의 논증식의 因에 ‘自許’라는 하나의 단서가 부가된 것으로 소개하는 반면, 窺基는 ‘自許極成’이라는 두 개의 단서가 부가된 것으로 소개한다. 먼저 元曉의 설명을 인용해 보자.

玄奘 삼장은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因을 세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 ‘우리측이 인정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 부정인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sup>28)</sup>

元曉가 『判比量論』에서 소개하는 玄奘의 논증식의 경우, 勝軍比量の 주장(宗)과 실례(喩)는 그대로 두고 因에 ‘우리측이 인정하는’이라는 단서만 부가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玄奘의 논증식을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중] 대승경전들은 모두 佛說이다.

[인] 自許인[= 우리측이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增一 등의 아함경과 같이

그러나 窺基의 『因明入正理論疏』에 의거할 경우 玄奘의 논증식은 다음

28) 玄奘三藏爲離此過 更立因言 自許非佛語所不攝故 如是能離 不定過失(藏俊, 『因明大疏抄』, p.450a).

과 같이 기술된다.

[중] 대승경전들은 모두 佛說이다.

[인] 自許極成<sup>29)</sup>인 <佛語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sup>30)</sup>

[유] 增一 등의 아함경과 같이

元曉의 논증식과 달리, 窺基가 소개하는 ‘玄奘이 개량한 논증식’의 인에는 ‘양측 모두 인정하는’(極成)이라는 단서가 추가되어 있다. 어느 쪽이 玄奘이 원래 고안했던 논증식일까?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窺基가 소개하는 논증식의 인에 부가된 自許極成의 의미를 풀이해 보아야 할 것이다.

‘自許極成’은 ‘자허이면서 극성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허이거나 극성인 것’<sup>31)</sup>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호화된다.

- ① 자허∩극성
- ② 자허∪극성

그런데 ‘극성’은 ‘자허∩타허’를 의미하기에 ①과 ②는 각각 다시 다음과 같이 연산될 수 있다.

29) 이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번역을 보류한다.

30) … 由此 大師 正彼因云 自許極成非佛語所不攝故 … (窺基, 『因明入正理論疏』, 卍續藏86, p.756b / 大正藏44, p.121c).

31) ‘자허이거나 극성인 것’, 즉 ‘자허 or 극성’이라는 언어적 표현은 논리적으로 ‘포괄적 選言’을 의미할 수도 있고 ‘배척적 選言’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자허∨극성’일 수도 있고, ‘자허△극성’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8일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은정희 교수님에 의해 지적된 바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자허이거나 극성인 것’은 이 중 ‘자허∨극성’을 의미한다.

$$\textcircled{1} \text{ 자허} \cap \text{극성} = \text{자허} \cap (\text{자허} \cap \text{타허}) = (\text{자허} \cap \text{자허}) \cap \text{타허} = \text{자허} \cap \text{타허} \\ = \text{극성}$$

$$\textcircled{2} \text{ 자허} \cup \text{극성} = \text{자허} \cup (\text{자허} \cap \text{타허}) = \text{자허}$$

①에서 보듯이 ‘자허극성’을 ‘자허이면서 극성인 것’(자허 $\cap$ 극성)이라고 해석할 경우 ‘극성’과 동치가 되기에 현상이 개량한 논증식은 승군의 논증식과 다르지 않은 꼴이 된다. 따라서 ‘자허극성은’ ‘자허이거나 극성인 것’(자허 $\cup$ 극성)을 의미해야 하고 이는 ②에서 보듯이 자허와 동치가 된다.

그래서 元曉는 玄奘의 논증식을 소개하면서 因에 ‘우리측이 인정하는’(自許)이라는 단서만 부가했던 것이다. ‘우리측이 인정하거나 양측 모두 인정하는’(자허이거나 극성)이라는 단서는 ‘우리측이 인정하는’(자허)이라는 말과 동치이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는 ‘우리측이 인정한다’는 말속에 내포되어 있다. ‘우리측이 인정하는 <불어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역시 ‘소승경과 대승경’뿐이다. 元曉는 玄奘이 고안했던 논증식을 소개하면서 因에 부가된 불필요한 단서인 ‘양측 모두 인정하는’이라는 말을 제거시켰다고 볼 수 있다.<sup>32)</sup>

32) 필자는 2003년 3월 8일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필자의 논문을 논평했던 김치은 박사는 ‘에초부터 규기는 自許라는 의미로 自許極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원효는 규기의 自許極成이라는 용어가 自許라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으며, 원효 자신이 상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自許와 極成에 맞추어 自許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조언한 바 있다(불교학연구회 홈페이지[www.bulgyohak.org] 학회자료실에 올린 김치은의 논평문 참조). 원효와 규기의 저술에서 보이는 ‘極成’의 용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하겠지만, 어쨌든 상기한 분석은 원효의 견지에서 이루진 것이기에 유의미하다. ‘極成’이란 *prāsiddha*의 번역어인데 『인명입정리론소』에서 규기는 이를 至極成就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볼 때 규기 역시 원효와 마찬가지로 극성이 ‘양측 모두 인정하는’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極成之言 簡諸小乘後身菩薩染汚諸色一切佛身有漏諸色 若立爲唯識 便有一分自所別不成 亦有一分違宗之失 十方佛色及佛無漏色 他不許有 立爲唯識有他一分所別不成 其此二因 皆有隨一分所依不成 說極成言爲簡於此 立二所餘共許諸色爲唯

## 2. 玄奘이 개량한 논증식에 대한 元曉의 비판

元曉는 『發智經』의 존재로 인해 부정인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勝軍比量을 개량하여 대승불설을 논증하려 했던 玄奘의 논증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제 이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①그런 인은 다시 相違決定의 오류에 빠진다. 즉, 저들은 다음과 같이 논증식을 세워 말할 것이다. [중] 대승경전들은 궁극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인]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佛語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勝論 등과 같이. ②여기에 제시된 인에는 부정이 있기도 하다. 마치 『중일아함경』 등과 같이 우리측이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 중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승경전들은 궁극적인 가르침에 포함되는가? 마치 色과 香 등과 같이 우리측이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 중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승경전들은 궁극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인가?<sup>33)</sup>

① 玄奘의 논증식이 元曉가 소개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면 元曉가 말하듯이 다음과 같은 상위결정의 논증식이 작성 가능하게 된다.

[중] 대승경전들은 궁극적인 가르침(至教量)이 아니다.

[인] 우리측[= 소승측]에서 인정하는 佛語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勝論(Vaiśeṣika) 등과 같이.

勝軍이나 玄奘의 논증식에서는 ‘주장명제의 슬어’(法: dharma)가 ‘佛說이

---

識故(窺基, 『因明入正理論疏』, 卍續藏經86, pp.743a~b(또는 大正藏44, p.115)).

33) 今謂 此因還有決違(違決) 謂彼立言 諸大乘經 非至教量 自許佛經(語)所不攝故 如勝論等 又此新因 亦有不定 爲如增一等 自許非佛語所不攝故 諸大乘經至教量攝 爲如色香等 自許非佛語所不攝故 諸大乘經 非至教量(『判比量論』: 善珠, 『因明論疏明燈抄』, p.346b). 藏俊의 『因明大疏抄』(p.550b)에는 밑줄 친 글자가 괄호 안의 글자로 되어 있다.

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元曉는 이를 '궁극적인 가르침(至敎量)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成唯識論』에 기술된 다음과 같은 논증에서 채취된 용어인 듯 하다.

대승경전들은, 모두 무아의 이치에 부합되고, 六趣에 왕래하는 것을 멀리하여 流轉을 등지고 還滅로 나아가며, 佛法僧 三寶를 찬탄하고 의도들을 비난하며, 五蘊 등의 법을 표방하고 勝性<sup>34)</sup> 등을 부정하며, 대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도된 없는 이치를 나타낼 수 있는 契經'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치 『增一阿含經』 등과 같이, 궁극적인 가르침(至敎量)에 포함된다.<sup>35)</sup>

『成唯識論』의 이어지는 문장에는, 대승이 '佛說'임을 논증하는 '미륵의 일곱가지 因'이 나열되어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sup>36)</sup> 『成唯識論』에서는 '궁극적인 가르침(至敎量)과 '불설'이 혼용되고 있기에, '궁극적인 가르침(至敎量)이라는 元曉의 표현은 '佛說'이라는 玄奘의 표현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玄奘이 개량한 논증식의 因에 '우리측에서 인정하는'(自許)이라는 단서가 부가되어 있기에 소승측에서도 대승측과 상반된 주장을 담은 위와 같은 상위결정의 논증식을 작성할 수 있다. 그 어떤 논증식이라고 해도 立論者와 敵對者가 因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상위결정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우리측에서 인정하는'(自許)이라는 단서는 '대승측에서 인정하는'을 의미하며 이런 단서가 부가된 因은 소승측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因이기에 상반

34) Pradhāna; 'Prakṛti'라고도 부른다. Puruṣa와 함께 상가(Saṃkhyā) 철학의 二元論을 구성하는 根本原質.

35) 諸大乘經皆順無我 違數取趣 棄背流轉趣向還滅 讚佛法僧毀諸外道 表蘊等法遮勝性等 樂大乘者許 能顯示無顛倒理契經攝故 如增壹等 至敎量攝(『成唯識論』, 大正藏31, p.14c).

36) 聖慈氏 以七種因 證大乘經 眞是佛說 一先不記故 … 是故大乘眞是佛說(『成唯識論』, 大正藏31, pp.14c~15a).

된 주장을 담은 상위결정의 주장이 소승측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元曉는, 玄奘의 唯識比量을 비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승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상위결정의 논증식을 작성해 보임으로써 대승불설을 증명하려는 玄奘의 논증식의 타당성을 비판했던 것이다.

② 元曉는 이어서 玄奘의 논증식이 부정인의 오류 역시 범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 ‘佛語’라는 용어를 ‘궁극적인 가르침’(至敎量)이라는 용어로 대체시킨 玄奘의 논증식을 다시 기술한 후 元曉의 설명에 의거해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중] 대승경전들은 모두 ‘궁극적인 가르침’(至敎量 = 佛說)이다.

[인]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增一 등의 아함경과 같이

元曉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부정인의 오류를 지적한다.

마치 『증일아함경』등과 같이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 중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승경전들은 궁극적인 가르침에 포함되는가?

마치 色과 香등과 같이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 중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승경전들은 궁극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인가?

이런 元曉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검토로 풀이될 수 있다.

동품정유성의 검토: 궁극적인 가르침 중에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불어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있다: 『증일아함경』 등

이품변무성의 검토: 궁극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 중에 우리측에서 인정하는 불어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있다: 색과 향 등



대승 공사상의 견지에서 볼 때, 색, 성, 향, 미, 촉, 법과 같은 제법은 부처님의 말씀(佛語) 속에 등장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아를 가르치기 위해 도구적으로 실시된 법들일 뿐이다. 따라서 색, 성, 향 등의 제법은 ‘궁극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에 속하는 異品이지만 ‘대승측에서 인정하는 불어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다. 즉, 이품유이다. 이렇게 이품유의 존재로 인해 상기한 논증식에서 부정인의 오류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元曉의 설명에 의해 고찰해 보았듯이 玄奘이 개량한 논증식은 因에 ‘우리측에서 인정하는’(自許)이라는 단서가 부가되어 있기에, 상반된 주장을 담은 상위결정의 논증식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색, 성, 향’ 등의 제법의 존재로 인해 논증식 그 자체도 동품유, 이품유인 공부정인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 V. 勝軍比量을 개작한 元曉의 理證的 논증식

이어서 元曉는 논증식을 하나를 제시하는데 이는 勝軍比量에 기술되었던 주장명제의 일부를 바꾸고 因에 약간의 조작을 가한 것이다. 元曉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 勝軍論事의 比量을 풀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 대승경전들은 올바른 이치에 부합된다. [인] 양측 모두 인정하는<sup>37)</sup> ‘佛語가 아닌 것’에

37) 규기는 ‘極成(prasiddha)’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極者至也 成者就也 至極成就故名極成(窺基, 『因明入正理論疏』, 大正藏44, p.98a). 따라서 ‘극성’이란 ‘궁극적으로 성립하는’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으나, 이 단어가 논증식에 사용된 경우 ‘토른하는 양측 모두 궁극적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는’을 의미하며 이는 ‘兩俱極成’

포함되지 않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유] 마치 『增一阿含經』 등과 같이. 이와 같이 할 경우, 상위결정에서 벗어나고 또 앞뒤의 갖가지 부정인의 오류에서 벗어난다.<sup>38)</sup>

元曉가 제시하는 논증식만 추출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중] 대승경전들은 올바른 이치에 부합된다.

[인]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가르침(敎)이기 때문에.

[유] 마치 『增一阿含經』 등과 같이.

주장명제에서 勝軍이 기술했던 ‘佛說이다’라는 술어(法, 能別)를 ‘올바른 이치에 부합된다’(契當正理)라는 말로 대체하고,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들(諸佛語)이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인을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가르침(敎)이기 때문에’라고 바꾸어 놓았다. 元曉는 이 경우 상위결정의 오류도 범하지 않고, 부정인의 오류도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元曉가 勝軍比量에 토대를 두고 새롭게 고안한 논증식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먼저 元曉가 개작한 논증식이 상위결정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유는, 논증식에 사용된 인에 ‘양측 모두 인정하는’(極成)이라는 단서가 부가되어 있기에 입론자와 적대자 共히 인정하는 立敵共許의 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을 갖는 논증식은 적대자인 소승측에 의해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

---

의 의미와 차이가 없기에, 본고에서는 이를 위와 같이 ‘양측 모두 인정하는’이라고 번역한다.

38) 是故今箋勝軍比量云 諸大乘經 契當正理 極成非佛語[所]不攝之敎故 如增一等 如是則離相違決定 又離前後 諸不定(過)也(善珠, 『因明論疏明燈抄』, p.346 / 藏俊, 『因明大疏抄』, pp.549~550). 『因明論疏明燈抄』에는 [所]가 누락되어 있고, 『因明大疏抄』에는 (過)가 누락되어 있다.

서 소승측에서는 이에 대해 상위결정의 比量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면 元曉의 논증식이 부정인의 오류를 범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因의 三相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해 보자.

동품정유성의 검토: 올바른 이치에 부합되는 것(同品) 중에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가르침(敎)이 있는가? → 있다(有): 『증일 아함경』

이품변무성의 검토: 올바른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 것(異品) 중에 양측 모두 인정하는 <佛語가 아닌 것>에 포함되지 않는 가르침(敎)이 있는가? → 없다(無)

勝軍이나 玄奘의 논증식에서와 같이 주장명제의 술어가 경전을 의미하는 ‘佛說’로 되어 있는 경우는 대소승 중의 각 학파마다 불설로 인정하는 경전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인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元曉가 改作했듯이 ‘올바른 이치에 부합됨’을 주장명제의 술어로 삼을 경우, 대승경전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VI. 결론

『成唯識論』에서는 유식교학의 정통성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 하나는 ‘아함경 등의 三藏’을 典據로 삼는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이치’에 의거한 설명이다. 전자를 敎證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理證이라고 부르는데, 『成唯識論』 말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지금까지 ‘성스러운 가르침’(聖敎)과 ‘올바른 이치’(正理)에 의거하여  
 唯識의 性과 相의 의미에 대해 분별해 보았으니,  
 얻은 공덕을 중생들에게 베풀어

모두 함께 조속히 無上의 깨달음에 오르길 바라노라.<sup>39)</sup>

勝軍은 因에 ‘양측 모두 인정하는’이라는 단서를 달고 二重否定을 사용한 절묘한 논증식을 고안하여 대승경전이 ‘성스러운 가르침’에 속하는 ‘경전 입’을 논증하려 하였으나, 玄奘이 지적하였듯이, 勝軍의 논증식에서는 부정인의 오류가 발생한다. 또, 元曉가 지적하였듯이 이를 개량한 玄奘의 논증식 역시 상위결정인과 부정인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대승불설을 教證하려고 했던 勝軍이나 玄奘 모두 논리적 오류를 피하지 못했다. 元曉는 대승불설에 대한 이들의 교증을 비판한 후 자신이 고안한 理證의 논증식을 소개한다. 즉, 勝軍比量을 일부 수정하여 대승이 ‘올바른 이치’에 부합된 가르침임을 논증하는 ‘共比量’, 즉 ‘大小乘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논증식’을 고안하였다. 元曉가 논증하듯이, 대승의 ‘佛說’ 여부는 그 경전이 ‘부처의 교설(佛說), 즉 ‘성스러운 가르침’(聖教)에 속한다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올바른 이치’(正理)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논증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 VII. 첨부 - 대승불설 논증과 관계된 그 밖의 단편

대승불설의 논증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되는 『判比量論』의 逸文으로 두 가지를 더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상기한 논의들을 간략히 요약한 구절이고,<sup>40)</sup> 다른 하나는 『成唯識論』에 기술된 대승불설 논증에 대해 비판하는 구

39) 已依聖教及正理 分別唯識性相義 所獲功德施群生 願共速登無上覺(『成唯識論』, 大正藏31, p.59a).

40) 判比量云 勝軍量中 三藏所加 亦有相違決定云 大乘教非至數量 自許非佛語所攝故 亦不爲過 理如前辨 又云 有不定 爲如增一等 自許非佛語所不攝至數量攝 爲如色等 自許非佛語所不攝 故非至數量 此亦不爾 色等共許是非佛語攝 因於彼無不成不定

절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그 전모에 대해 앞에서 상세히 논의했기에 그 설명을 생략하고, 후자에 대해 조명해 보기로 하겠다.

太賢은 『成唯識論學記』에서 다음과 같이 『判比量論』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判比量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第5因을 논하는 것은 상위결정을 갖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중] 대승경전들은 궁극적 가르침이 아니다. [인] 소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진도됨 없는 이치를 나타내는 계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 마치 외도의 논서와 같이’.<sup>41)42)</sup>

여기서 元曉가 말하는 ‘第5因’이 대승경전이 진정한 불설임을 증명하기 위해 미륵이 제시한 7가지 因<sup>43)</sup> 중 제5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成唯識論』에서는 이런 제5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섯 번째는 ‘존재함(有)’과 ‘존재하지 않음(無有)’에 의거한 설명이다. 만일 대승이 ‘존재한다면’ 이런 대승의 가르침들을 부처님의 교설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것들(= 대승의 가르침들)을 떠나서 대승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대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聲聞乘의 가르침 역시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대승에서 떠날 경우 성불할 수 있는 이치가 결코 있을 수 없는데 누가 세상에 나와 성문을 설하겠는가? 그러므로 성문승은 부처의 교설이며, 대승교가 아니라면 을

(작자미상, 『成唯識論本文抄』, 大正藏65, p.525a).

- 41) 判比量論云 論第五因 有相違決定云 諸大乘經非至教量 樂小乘者不許顯示無顛倒理契經攝故 如外道論(太賢, 『成唯識論學記』, 『大日本續藏經』 제50권, p.66a / 작자미상, 『成唯識論本文抄』, 大正藏65, p.522).
- 42) 이 논의가 勝軍比量과 관계된 논의 중 일부로 『判比量論』에 실려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勝軍比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승불설을 입증하는 논증에 대한 元曉의 비판이기에 여기서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
- 43) 聖慈氏以七種因證大乘經真是佛說 一先不記故 … 二本俱行故 … 三非餘境故 … 四應極成故 … 五有無有故 … 六能對治故 … 七義異文故 … 是故大乘真是佛說(『成唯識論』, 大正藏31, pp.14c~15a).

바른 이치일 수가 없다.<sup>44)</sup>

그런데 제5인에 대한 이런 설명에서는 元曉가 비판하고자 했던 논증식이 추출되지 않는다. 상기한 『判比量論』 인용문에 의거하여 추정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 논증식의 주장(宗)은 ‘대승경전들은 궁극적인 가르침이다’가 되어야 하고, 因에는 ‘전도됨 없는 이치를 나타내는 契經에 포함되기 때문에’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륵이 제시하는 7가지 因에 대한 소개 바로 앞에 실린 문장에서 元曉가 비판하고자 했던 논증식이 채취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인용해 보자.

“[宗의 主語(有法)] 대승경전들은”, 모두 無我的 이치에 부합되고, 六趣에 왕대하는 것을 멀리하여 流轉을 등지고 還滅로 나아가며, 佛法僧 三寶를 찬탄하고 의도들을 비난하며, 五蘊 등의 법을 표방하고 勝性<sup>45)</sup> 등을 부정하며, “[인] 대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도됨 없는 이치를 나타낼 수 있는 契經’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 마치 『增一阿含經』 등과 같이” “[宗의 述語(法)] 궁극적인 가르침(至教量)에 포함된다.”<sup>46)</sup>

이 문장에서 쌍따옴표(“”)로 묶은 문장들을 추려낼 경우 다음과 같은 논증식이 작성된다.

[宗] 대승경전들은 궁극적인 가르침(至教量)에 포함된다.

44) 五有無有故 若有大乘即應信此諸大乘教是佛所說 離此大乘不可得故 若無大乘聲聞乘教亦應非有 以離大乘決定無有得成佛義 誰出於世說聲聞乘 故聲聞乘是佛所說 非大乘教不應正理(『成唯識論』, 大正藏31, p.15a).

45) Pradhāna; ‘Prakṛti’라고도 부른다. Puruṣa와 함께 상가(Saṃkhyā) 철학의 二元論을 구성하는 根本原質.

46) 諸大乘經皆順無我 違數取趣 棄背流轉趣向還滅 讚佛法僧毀諸外道 表蘊等法遮勝性等 樂大乘者許 能顯示無顛倒理契經攝故 如增壹等 至教量攝(『成唯識論』, 大正藏31, p.14c).

[인] 대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도됨 없는 이치를 나타낼 수 있는 契經’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 마치 『增一阿含經』 등과 같이

上記한 『成唯識論學記』에 인용되어 있는 상위결정의 논증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중] 대승경전들은 궁극적 가르침(至敎量)이 아니다.

[인] 소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전도됨 없는 이치를 나타내는 契經’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 마치 ‘外道の 논서’와 같이

이는 분명 上記한 『成唯識論』의 인용문에서 추출된 논증식을 상위결정의 오류에 빠뜨리는 논증식이다. 『成唯識論學記』에 인용된 元曉의 상위결정의 논증식은 미륵의 제5인에 기술된 논증이 아니라, 그 앞의 문장에서 추출된 논증식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비판의 대상이 제5인이라고 기술한 것은 元曉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成唯識論』에서는, 대승경전이 궁극적 가르침이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고안된 因에 ‘대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이라는 단서를 부가하고 있는데, 『判比量論』을 통해 元曉는 ‘바로 이런 단서로 인해 이와 상반된 주장을 담은 논증 역시 소승측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주제어**

원효(Won-Hyo), 판비량론(Pan-Bi-Ryng-Ron), 현장(Hsüan Tsang), 대승(Mahāyāna), 불설(Buddhavacana), 승군(Jayasena), 논증식(syllogism), 부정인(anaikāntika), 증일아함경(Aṅguttara-Āgama), 발지론(Abhidharma-jñānaprast-hāna-sāstra).



## Some syllogisms proving Mahāyāna's orthodoxy in Won-Hyo's *Pan-Bi-Ryang-Ron*

- Hsüan-Tsang's critique and Won-Hyo's recomposition of  
Jayasena's syllogism -

Kim Sung-chul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of proving Mahāyāna's orthodoxy throughout the history of Mahāyāna Buddhism. In *Mahāyānasaṃgrahavṛtti* (攝大乘論釋) of Asvabhāva (無性), we can find some syllogistic expressions proving Mahāyāna's orthodoxy. But those expressions fall in the fallacy of *anaikāntika*. So Jayasena (勝軍) who was the teacher of Hsüan-Tsang designed new syllogism proving Mahāyāna's orthodoxy. That is as follows.

pratiñā: All the Mahāyāna scriptures are included in Buddha-  
vacana.

hetu: Because they are not included in 'non-Buddhava-cana admi-  
-tted by both parties'.

dr̥ṣṭānta: Like *Aṅguttara-Āgama* etc.

But his pupil Hsüan-Tsang pointed out the fallacy of *anaikāntika* in this syllogism by presenting the counter-example of *Abhidharma*

*-jñānaprasthāna-sāstra*(發智論) and designed new syllogism as follows.

pratijñā: All the Mahāyāna scriptures are included in Buddhavacana.

hetu: Because they are not included in 'non-Buddhavacana admitted by this party'.

dṛṣṭānta: Like *Aṅguttara-Āgama* etc.

In *Pan-Bi-Ryang-ron* Won-Hyo criticized this syllogism. Won-Hyo also pointed out the fallacy of anaikāntika in this syllogism. To show this fallacy Won-Hyo took Rūpa(色) and Ghāna(香) etc. as the counter-examples.

Finally Won-Hyo made himself an syllogism proving Mahāyāna's orthodoxy as follows.

pratijñā: The teachings of all the Mahāyāna scriptures are reasonable.

hetu: Because they are teachings not included in 'non-Buddhavacana admitted by both parties'.

dṛṣṭānta: Like *Aṅguttara-Āgama* etc.

Here Won-Hyo means that the orthodoxy of Mahāyāna should be decided not by proving whether they are preached by Gautama Buddha himself or not, but by proving whether they are reasonable or not. So we can guess that Buddha conceived by Won-Hyo was not the Nirmāṇakāya but the Dharmakāya.